

반도체 흔들리니 증시도 '흔들'... 코스피 체질 개선 시급

외국인, 13거래일 연속 순매도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 위험”
“韓 펀더멘털 여전히 견조” 의견도

7일 코스피가 4.91% 하락한 7656.31에 마감했다. 코스피를 이끌던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가 6.92%, SK하이닉스가 6.06% 하락해 코스피보다 낙폭이 컸다. 앞서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공장) 등을 세우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부가 발표했지만 외국인이 ‘셀 반도체’에 나서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9000억원어치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였다.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이 기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매도만 35조8000억원이 넘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증시가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경계력’

마이클 윌슨 미국 최고투자전략가가 이끄는 모건스탠리 팀은 6일(현지시간) 투자자들이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기업)를 포함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분야로 이동하면서 반도체주의 상



따는 시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인공지능(AI) 생태계 내에서 탄탄한 핵심 사업을 바탕으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대 상승 종목군이었던 반도체주는 순환매 여파로 신고가 경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지난달 고점 대비 약 14% 급락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이후로는 여전히 123% 높은 수준이다. 반면 UBS의 하이퍼스케일러 바스켓은 지난해 9월 이후 2% 하락한 수준이다.

모건스탠리는 미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기대 후퇴와 국제 유가 하락도 반도체 투자 열기에서 벗어나는 순환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짚었다. 모건스탠리는 알파벳·아마존 등이 AI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왔지만 이런 지출을 정당화할 만한 수익이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설비투자 규율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윌슨 전략가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하이퍼스케일러는 이제 안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주는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괴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월가의 큰 손들도 반도체에서 발을 빼

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고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들은 지난주까지 글로벌 반도체 주식의 하락세와 맞물려 4주 연속 기술 하드웨어 주식을 매도했다.

한국 반도체를 직접 거론한 곳도 있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자체 연구 기관인 블랙록 투자연구소(BII)는 지난달 30일 한국 등 신흥 시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만은 TSMC가 증시를 주도하는 구조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장 부아벵 BII 소장은 “대만과 한국 주식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큰, 소수의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며 “여러 시장이 동일한 공급망 밸류체인에 묶여 있을 때 지리적 다변화는 집중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국증시와 반도체 체력 여전히 탄탄

자영업자 박모(31)씨는 7일 오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속보를 보고 하루종일 고민에 빠졌다. 역대급 실적에도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곤두박질치자 주가를 보며 돈을 더 넣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박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한창 오

르던 2021년 초 ‘9만 전자’에 올라왔지만, 이후 기약 없는 하락장을 버텨야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박 씨는 “여기저기서 한국증시 펀더멘털이 좋고, 반도체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서 일단 들고 있는데 불안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국증시가 매력적이란 평가가 많다.

크리스티 탠(Christy Tan) 프랭클린템플턴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6일 “한국 증시 밸리는 인공지능(AI) 주도 반도체 실적 사이클과 정치적 안정,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이끌었다”며 “그러나 최근의 주가 조정과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잔류는 한국 증시의 상승 잠재력과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지수를 사는(buy the index)’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탠은 “과열된 초대형 반도체주를 뒤쫓기보다는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었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우량 기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방산·조선·원전·로봇·전력설비 등 미국의 재산업화와 글로벌 공급망 투자의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대안이 될 것”이라 제안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찬진 “모험자본 활성화, 선택 아닌 필수”

(금융원장)

금융감독원·네이버페이 공동 추진
‘Npay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
정보 비대칭 해소해 투자 선순환 구축

“우리 경제의 성장과 대도약을 위해서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스키아홀에서 열린 ‘Npay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식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시장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네이버페이가 공동 추진한 이번 플랫폼은 모험자본 시장



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연결하는 민관 협력 인프라다.

모험자본 시장은 그동안 투자 대상 기업을 찾기 어렵고 기업 역시 투자자를 만날 기회가 제한되는 등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원은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플랫폼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네이버페이가 구축·운영을 맡고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해외에서도 피치북(PitchBo

ok)과 같은 민간 중심 벤처투자 플랫폼이 활성화돼 있는 만큼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은 이용자별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증권사는 AI 기반 기업 검색과 투자 정보 열람, 출자 공고 관리, 투자 이후 실시간 사후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VC와 신기사는 표준화된 펀딩 제안서 작성 도구와 맞춤형 투자기업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은 IR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 프로필을 생성하고 플랫폼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투자자에게 기업을 상시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네이버 검색에서도 기업 정보가 노출돼 투자 유치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개인투자자는 이용 대상이 아니며 기관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원장은 추사에서 “모험자본 시장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유망 기업으로 더욱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자금 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자생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개발을 주도한 네이버페이에 지속적인 관리와 기능 고도화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금 공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플랫폼 활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

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VC, 신기사가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발굴할 수 있는 투자심사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을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지금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도 플랫폼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네이버페이는 플랫폼 출시 이후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중기부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플랫폼의 성공적인 안착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헤지펀드, 엔화 약세 베팅 19년 만에 최대

약 13만8000계약으로 늘어

헤지펀드들의 엔화 약세 베팅 규모가 ‘엔캐리 트레이드’ 정점이었던 2007년 이후 최대치로 불어났다. 엔화가 이미 40년 만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나온 결과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옵션·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의 엔화 추가 하락 베팅 규모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13만8000계약으로 늘었다.

이런 약세 베팅 급증은 엔화가 달러당 162엔선을 뚫고 1986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여부와 시점에 대한 투기적 관측을 불러온 가운데 나왔다.

엔화는 올해 주요 통화 중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인 통화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미국 등과의 큰 금리 격차가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일본은행(BOJ)이 지난 6월 예상했던 금리 인상을 단행해 엔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으나, 오히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물가안정 회복을 다짐한 직후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엔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규모 지출 계획과 통화완화 선회 기조로도 압박받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지난주 연례 연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일본 당국은 지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엔화 방어에 사상 최대인 11조7300억 엔(약 727억달러)을 투입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외환정책을 지휘했던 아마키 다쓰오 전 재무성 국제담당 부재무관은 이런 약세론을 반박하며 “엔화가 현재보다 최대 20% 강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

장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130엔 안팎이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본 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50%에 그쳐 미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근거다.

그는 200엔대 이상까지 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본 내 시장 전문가들은 엔화가 현재 시세인 달러당 160엔대를 넘어 170엔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정책의 재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달러당 170엔대로 엔화 약세가 심화할 수 있다는 시장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쓰이스미토모DS자산운용 소속 시장 분석 전문가는 이 신문에 “향후 일본 정부 예산 규모가 더 부풀게 되면 매도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엔화 시세를 달러당 165엔 전후로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SK하이닉스 ADR, 70억달러 투자 몰린다

글로벌 투자사, 투자 의향 밝히

전직 오픈AI 연구원이 설립한 미국 헤지펀드 등세 곳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공모에 최대 70억달러(약 10조7000억원)어치를 인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 헤지펀드 시추 에이셔널 어웨어니스(Situational Awareness), 영국 자산운용사 베일리 기포드(Baillie Gifford), 미국 벤처캐피탈 코투(Coatu) 등 3곳이다. 이는 전체 공모 물량 43조 1400억원(280억달러)의 4분의 1에 달한다.

전직 오픈AI 연구원 리오폴드 애션브레너가 설립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에 대한 선구적 투자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아온 곳이다.

베일리 기포드는 혁신 기업을 발굴해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 보유하는 성장주 투자에 강점을 보이는 곳이며 코투는 테크 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로 유명한 벤처캐피탈이다.

SK하이닉스는 발행주식의 약 2.5%에 해당하는 신규 1779만주를 ADS 형태로 발행해 오는 10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트라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알버트 용 매니징파트너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큰 점을 언급하면서도 “SK하이닉스 주식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스탠다드차타드의 순딥 간토리 주식 부문 최고투자책임자는 미국 시장에 따른 접근성 개선은 긍정적이라면 “메모리 사이클의 타이밍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신하은 기자